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재조직

제1보좌에 칠십인인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성임

2008년 8월 1일부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이 재조직 되었다. 데이비드 에프 에번스 회장과 제2보좌인 최윤환 장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새로운 제1보좌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를 맞이했다. 스티븐슨 장로는 2008년 4월 5일, 52세의 나이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시되었다. 그는 부름을 받을 당시 와드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소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1955년 8월 6일, 유타 주 옥든에서 태어났다.



1979년 4월, 그는 리사 진 하일리와 결혼하여 슬하에 네 자녀를 두고 있다.

스티븐슨 장로는 1979년에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마케팅 중심의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Icon Health & Fitness, Inc. 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COO)로서 일했다. 스티븐슨 장로는 시와 지역 사회에서 여러 활동에 관여해왔다. 현재는 브리검 영 대학교 매리어트 스쿨의 전미 경영 자문 위원회 일원이며, 유타 주립 대학교 재단 위원을 맡고 있다. 스티븐슨 장로는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장로 정원회 회장, 고등 평의원, 감독,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단 보좌, 대제사 그룹 지도자, 감독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일본 나고야 선교부 회장, 주일학교 교사 등 여러 교회 부름에서 봉사했다. ■

새로운 부산 선교부 회장



부산 선교부 회장으로 새롭게 부름 받은 케네시 웨인 제닝스 회장과 제닝스 자매가 2008년 7월 1일부터 봉사하기 시작했다. 감독, 고등 평의원, 지부 회장단,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도 봉사한 제닝스 회장과 와드 초등학교 회장

과 음악 책임자 등으로 봉사한 제닝스 자매에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다.

제닝스 회장은 1968년에 한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오면서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한 제닝스 회장은 서울과 대구, 그리고 춘천과 군산 등에서 선교 사업을 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키웠다. 그 인연과 애정은 제닝스 회장이 한국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1981년부터 다시 이어졌고, 한국 서울 성전 건립 등의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했다.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제닝스 회장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14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한국을 잊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부산 선교부 회장이라는 부름을 받은 제닝스 회장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에 아내와 함께 큰 기쁨을 나누었다. 선교 사업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제닝스 회장은 한국 성도들의 리더십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시아 전역에 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봉사를 시작한 제닝스 회장 부부의 목표는 제닝스 회장의 부모에게 찾아온 두 명의 선교사 때문에 가족 전체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다. ■

캐나다 한인 지부 설립

2008년 6월 22일 캐나다 밴쿠버에 “밴쿠버 스테이크의 제5지부”로 한인 지부가 새로이 조직되었다. 초대 한인 지부 회장으로는 허충석 형제, 제1보좌는 정희모 형제, 제2보좌는 최형권 형제, 그리고 서기로 박옥진 형제가 부름 받았다.

이로써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그 지역 와드 감독단의 감리 하에 가졌던 한국어 성찬식과 주일학교를 끝내고, 6월 29일부터 밴쿠버 중심부에 위치한 스테이크 센터인 버나비 와드에서 독립적인 지부 모임을 가졌다. 이날 한인 지부 조직을 위해 밴쿠버 스테이크의 워커 회장과 두 보좌가 참석했고, 서리 스테이크의 소울 회장도 참석했다.

새로 부름 받은 지부 회장단과

그 아내들은 우리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부가 발족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간증들을 나누었다. 또한 이들은 언어소통의 부족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적기에 한인 지부라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까지 한인 성도들을 이끌어 준 지역 지도자들에게 감사



를 돌렸다. 새로 부름 받은 허충석 한인 지부 회장은 “주님의 사업에 선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간증과 함께 한인 지부에 참석하는 모든 가족들과 개개인이 신앙과 간증을 키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했다. ■

〈기사 제공 : 부부 선교사 권찬태 장로, 김정애 자매〉

브리검 영 대학교 한국 지역 총 동문회

2008년 6월 14일 브리검 영 대학교 한국 지역 총 동문회가 미 8군 용산 부대 내 공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브리검 영 대학교 프로보, 아이다호, 하와이 캠퍼스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가정과 사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와드와 지부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며 빛을 발하고 있는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 모임은 BYU 하와이 졸업생인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최윤환 장로의 감리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기소개, 바비큐 파티, 자매 야구, 형제 축구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는 100여 명의 BYU 동문 및 가족이 참석했다. 동문들은 이 모임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



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동문회에서 준비한 티셔츠를 모임 시간 내내 입고 활동에 참여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많은 동문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도 참여했다. 현재 BYU 한국 지역 총 동문 회장으로는 박환수 형제가 수고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총 동문회 모임을 매년 개최하고, BYU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귀국하는 후배들을 위한 진로 지도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총 동문회 모임을 계기로 BYU 동문들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한국 교회 발전에도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현대의 방향구가 되는 잡지, 리아호나

우리나라에는 총 4,00여 종의 잡지가 있다. 매일 30개 이상의 잡지가 새로 탄생하고, 그만큼인 30개 정도의 잡지가 사라진다. 시사, 교양, 여성, 학습, 종교 등 27가지로 분류된 4,00여 종 잡지 중 무가지, 즉 비매품으로 유통되는 사보나 협회보가 1,70여 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돈을 받고 파는 매품 잡지들이다. 그렇다면 매품 잡지 중 제일 저렴한 가격의 잡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리아호나'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리아호나의 가격 속에는 '현대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이 값진 잡지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는 따뜻한 배려가 들어 있다. 리아호나는 선지자의 말씀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회원들의 간증을 전하는 잡지다. 리아호나는 그 말씀과 간증을 통해 광야를 여행하던 리아가 발견한 같은 이름의 나침반처럼 오늘 날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면전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리아호나를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와 리아호나를 읽으며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방향구가 되는 잡지, 리아호나를 소개한다.

“가장 값진 선물”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의 김정희 자매가 리아호나 담당자로 부름 받은 것은 작년 5월쯤의 일이다. 평소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었지만 새로운 이 부름 또한 김 자매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어려움을 감독님에게 여러 번 호소와 표현했었던 김 자매에게 박일훈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리아호나는 현대의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이 들어 있는 주님의 양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생각으로 리아호나 구독을 권유하는 건 어떤가요? 우선 200명의 사람에게 리아호나를 나누는 생각으로 시작해보시죠.”

김 자매가 속해 있는 안양 스테이크 금천 1와드의 활동 회원 수는 110여 명. 감독님의 제안을 들은 김 자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그 때부터 ‘어떻게 하면?’이라는 물음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이 생각했죠. 처음엔 그냥 우선 제가 리아호나 담당자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사실 우리 와드에는 훌륭한 회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리아호나를 다 보고 있는데 (20부가 되려면) 어떻게 기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김 자매는 그렇게 방법을 연구했다. 회원들이 기분 좋게 리아호나를 기증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를 주면 좋을까. 김 자매가 선택한 것은 회원들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계기를 찾는 것이었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 기증하라고 제안했죠. 아이들 성적이 오르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할 때

도 말이에요.”

김 자매의 노력은 즉각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자매의 남편도 거들었다. 오랫동안 교회와 떨어져 있던 남편이지만 200부라는 실제적인 목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아내에게 “200부가 달성 되면 그걸 기념으로 나도 10부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김 자매는 리아호나 기증이 선교 사업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회원들의 리아호나 기증이 선교 사업에 쓰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다.

“평소에 교회에 오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죠. 회원들은 그런 친척이나 친구들을, 감독님은 저활동 회원들의 주소를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와드 선교사님에게도 드려서 구도자들이나 영어 회화반 반원들에게 줄 수 있게 했고요. 영어 회화반 시간에 문제를 맞추거나 할 때 상품으로 회원들이 기증한 리아호나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와드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네 개 선교부에 각각 10부씩 매달 리아호나가 보내지고 있어요.”

김 자매의 성과는 드디어 200부를 뛰



어넘기 시작했다. 거기에 물론 남편이 약속한 10부도 추가되었다. 리아호나 담당자로 봉사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지금, 금천 1와드는 매달 280여부의 리아호나를 보고 있다.

“사실 제가 한 일보다는 교회 회원들이 도와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죠. 한 번도 싫다는 말씀 안 하고 매달 기증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은 거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시죠.”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름에서 해임되길 바라며 봉사했다고 말했지만, 그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김 자매의 얼굴에서 1년 여 동안의 봉사에서 얻은 보람과 기쁨들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름을 수행하는 데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김 자매는 성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성전에 많이 갔어요. 부름은 여전히 저에게 많은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성전에 다니면서 힘을 얻었죠. 부름이 제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전에 다니면서 감사함을 많이 느꼈고, 이게 단순히 리아호나 구독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 사업이구나 하는 것어요. 리아호나를 누군가에게 기증하는 것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리아호나를 찾아보라”

인천 스테이크 가정 와드의 이기옥 형제 가족은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리아호나부터 펼쳐본다. “문제가 생기면 리아호나를 찾아보라.”는 말은 무척이나 친숙하면서도 효과적인 이기옥 형제 가족만의 경구요 교훈이다. 이기옥 형제 가족에게는 리아호나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나침반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중훈이까지 모두 모이는 저녁 시간이면 이기옥 형제 가족은 함께 모여 가족 경전 읽기를 한다. 네 살 배기 막내 중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경전을 뒤적이며 웅얼거리는 것까지는 어느 가정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가족 개인별로 구독하는 자신만의 리아호나를 꺼내 드는 순간부터 이 가정의 가족 경전 읽기 시간은 사뭇 달라진다. “자, 그럼 오늘 리아호나를 읽고 느낀 점은 뭐지?”라는 이기옥 형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족들은 그 달의 리아호나를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부모인 이기옥 형제와 김희경 자매부터 시작해 막내를 제외한 초등학교 5학년 중민이까지 각자 자기가 읽은 리아호나 기사를 요약해서 전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원리와 교훈을 발견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기옥 형제 가족의 이 특별한 리아호나 읽기는 200년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처음 시작은 아버지인 이기옥 형제의 아이디어였다. “리아호나는 또 다른 경전이라는 생각에 가족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자의 느낀 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2005년 당시에는 더 어렸던 자녀들이 불평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이기옥 형제는 리아호나 읽을 것을 끊임 없이 독려했고, 한 번 두 번 모임이 계속 될수록 자녀들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맏이인 중훈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진짜 많이 투덜거렸죠. 하지만 리아호나를 자주 읽으니까 점점 재미있게 느껴지고 정말로 참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아호나 읽기에 재미가 붙으면서 멀쩡히 떨어져 앉아 심드렁하던 자녀들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자기가 읽



뒷줄 왼쪽부터: 중욱(중2), 중훈(고1), 김희경 자매
앞줄 왼쪽부터: 중민(5학년), 이기옥 형제, 중미(4세)

은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다. 몇 달 후부터는 리아호나 기사에서 이기옥 형제와 김희경 자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음의 원리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녀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학교 공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발표력이 향상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한 권 두 권 리아호나가 쌓여가듯이 자녀들의 신앙이 커지고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기옥 형제는 리아호나를 읽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간증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학교에서도 리아호나를 읽는 중훈이는 친구가 관심을 보일 때마다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고 간증을 전한다.

리아호나는 이기옥 형제 가족을 변화시켰다. 텔레비전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가족 간의 대화를 채워 넣게 했으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길을 잃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찾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단단함을 그들은 리아호나에서 찾았다. ■

집회소를 깨끗이 함

“내가 나의 성전에 홀연히 오리라.”
(고리와 성약 36편 8절)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집회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야곱서 6:7)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 집회소를 사용합시다.”(1997년 7월호 성도의 빛, “참된 신앙”, 67쪽)라고 말씀했다. 집회소는 예배와 배움의 장소, 세상으로부터의 파란치가 되도록 한낱된다. 아울러, 집회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증거물이며 교회 회원들의 화평과 헌신의 증거이다. 우리는 몸을 단정하게 기르고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는 교회, 즉 집회소 건물도 관리하고



청소해야 한다.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는 매주 토요일에 두 가정 씩 팀을 구성해 집회소 청소를 한다. 벌써 몇 년 동안 계속돼온 이 청소 방법 때문에 장위 와드 회원들은 영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안식일 모임을 할 수 있다. 회원들은 집회소 청소를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장위 와드 회원들에게 교회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자신의 건물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의 집이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전, 내 방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듯이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청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위 와드의 한석용 감독은 가장 효과적인 집회소 관리 방법에 대해 “성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집회소를) 모두가 내 집과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집회소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감독의 말은 집회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서울 북 시설 운영 사무소의 소장인 송병철 형제는 “모임을 마치고 나면 ‘모임 전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회원들이 함께 정리”한다면 집회소 관리가 보다 쉬워진다고 말한다. 서울 남 시설 운영 사무소

의 소장인 김인회 형제도 좋은 방법을 들려준다. “일단 각 건물 관리의 주체가 회원들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밖에 와드 건물 대표를 불러서 모든 회원들이 집회소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 시설 운영 사무소의 소장인 김재택 형제가 전하는 방법은 송병철 형제의 그것과 비슷하다. 바로 모임이 끝난 즉시 청소하는 것이다. “의자나 칠판지우개 등의 비품을 사용하고 나면 질서 있게 정리 정돈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지저분하다면 바로 진공청소기와 걸레를 동원해서 청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설 운영 사무소의 소장인 안경일 형제는 스테이크 회장이나 지방부 회장, 그리고 감독이나 지부 회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덧붙였다. “회원들은 집회소의 청결 상태나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도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권 지도자들이 집회소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만큼 영이 충만해집니다.”



집회소 청소와 관리는 결코 어렵지 않다.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창문을 닦는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집회소, 주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은 깨끗하고 성스럽게 변한다. 또한 집회소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방에서 음식물을 만들지 않는 등의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우리의 집회소는 주님의 든든한 보호를 받게 된다. 회원들이 집회소를 항상 지혜롭게 사용하고, 주의와 관심과 배려를 기우리고 존경심을 나타내며 어질러 놓은 것을 바로 청소할 때 우리는 “홀연히” 오시는 주님을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은 회원들의 집회소 관리 참여 내용을 열거한 것이다. 회원들은 다음의 13가지 항목을 지켜 집회소를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다.

- 모임이나 활동 후에 청소한다. 이 청소에는 비질과 필요한 경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또한 쓰레기를 밖에 내다 버리는 것까지 포함된다.
- 팀 관리인이 청소하는 시간 이후에 모임이나 활동을 가질 때에는 일요일을 위해 집회소를 정리해 놓는다.
- 모임이나 활동을 위해 직접 문을 열고 잠근다.
- 탁자를 정돈하고 의자를 편다. 또 모임 후 탁자와 의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일요일에도 그렇게 한다.
- 침례식을 위해 침례탕에 물을 채우고, 침례식이 끝나면 물을 빼고 청소한다.
- 성찬대를 청소한다.
- 마이크 및 비디오 장비를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 한다.
- 전등, 마이크, 오르간 및 기타 전기 장비를 켜고 끈다.
- 결혼 하례식이나 기타 교회 모임 이외의 승인 된 행사나 모임을 갖게 될 경우, 끝난 후 청소한다.
- 음식을 먹는 장소와 냉장고(제공되는 경우), 기타 부속용품 및 도구를 청소한다.
- 도서실 및 교실의 비품을 청소하고 관리한다.
- 잔디밭 및 화단을 가꾼다.
- 집회소 및 주변을 청소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이나 특별 활동에 참여한다.

헌납식 소식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헌납식

지난 2008년 6월 21일 토요일에 서울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헌납식이 있었다.



120여 명의 회원이 나오는 부천 와드는 회원 수에 비해 부족한 공과 교실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에 증축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교회 본부의 승인을 얻어 200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6개월 동안 계속된 공사는 올해 5월말에 끝났고, 부천 와드 회원들의 염원이 담긴 헌납식은 지역 칠십인인 이용환 장로가 감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용환 장로는 말씀에서 “새로 지어진 부천 와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잘 가꾸고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박지훈 부천 와드 감독은 “회원들과 구도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새로운 건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헌납식

2008년 7월 6일 일요일에는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헌납식이 있었다. 창원 와드

의 헌납식 또한 증축 헌납식으로 1990년에 처음 준공된 후 18년이 지난 2008년 7월에 편안하고 깨끗한 새 건물로 재탄생된 것이다. 창원 와드는 2007년 11월부터 증축 공사를 시작했고 8개월의 공사 끝에 모든 회원들이 만족하는 건물이 지어졌다. 헌납식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환 장로가 감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윤환 장로는 헌납식 말씀에서 “헌납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이 건물처럼) 늘 새로워지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창원 와드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모임에 참석한 200여명의 회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건물에서 펼쳐질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큰 기대를 표했다. ■



지역 단신

마산 스테이크 <김민정 기자>

특별 노변의 모임-2008년 6월 29일 일요일 마산 스테이크 센터에서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의 환송 특별 노변의 모임이 있었다. 마산 스테이크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시작된 이 모임은 부산 선교부를 위해 봉사하고 마산 스테이크에 큰 도움과 사랑을 보여주었던 송평중 회장 부부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값진 기회였다. 송평중 회장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과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1명



정규범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마산 스테이크
사천 지부 지부 회장: 이진만(전임: 도재왕)
부산 선교부
부산 선교부 회장: 케네시 웨인 제닝스(전임: 송평중)